

# 장성군 '치매 치료 메카'로 떠오른다

### 치매거점센터 이어 지원센터 개소 진단부터 치료·요양까지 가능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도 기대

장성군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호'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응해 치매 치료 의료 인프라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읍에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 치매전문 거점센터(이하 치매거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장성군은 특히 새 정부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까지 확정되면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 치료 메카'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장성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내 치매병동을 증축해 치매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거점센터는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역 지자체인 장성군과 함평군·영광군이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동으로 공모해 유치했다.

사업비 9억6000만원이 투입된 치매거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65㎡ 규모로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가 최근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성주 자문단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넣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조성돼 운영중이다.

치매예방센터인 1층에는 작업치료실과 인지재활치료실, 생활훈련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치매환자 전문입원실인 2층에는 26병상 규모의 입원실이 마련돼 있다.

치매거점센터가 입주한 공립노인요양병원도 치매 환자 요양소의 기능과 함께 지역민의 치매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매 메카를 꿈꾸

고 있는 장성군은 조만간 치매안심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 치매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한 지역에서 가능한 치매치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의 치매 치료 인프라는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면 '화룡점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광주·전남 3대 상생 공약으로 장성군에 치매치료와 밀접한 뇌심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15일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을 면담하고,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일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치매환자를 나랏가 맡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지역 내 치매 환자를 적극 치료하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 지난 5일 전국 시군구 25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상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광양시 '섬진강변 뱃길 복원' 본격 추진

### 200억원 투입 2019년 완공 짚와이어·캠핑장 체험 시설도

광양시가 '섬진강변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는 "최근 문동식 부시장과 실·국장 간부 공무원, 시설설계용역사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마덕포구에서부터 남도대교까지 전 사업 구간을 답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의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기존 계획안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은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이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광양시는 국비 포함 85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섬진강을 활용한 짚와이어와 선착장 설치, 가로수길 조성, 경비행장 및 자전거 놀이터, 캠핑장, 강수욕장 설치 등이다.

참석자들은 사업 계획과 사업대상지

여건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둘러보고, 대상지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진월면 중도와 사평 둔치 등 섬진강변의 둔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사업장 배후지 주차장 확보' 필요성과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맑은 물 푸른 농촌 사업' 등 관련사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시설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손봉호 관광시설팀장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해 시설설계용역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인 섬진강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거리와 길거리, 체험거리 등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염해까지... 전북 논밭 가뭄 피해 확산

가뭄의 장기화로 전북 논밭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남원, 순창, 고창 등 일부 지역에서 논물 마름(10ha), 밭 시들(18ha)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고창에서 염해(17ha), 논물 마름(3ha)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는 도내 1~6월 평균 강수량이 209.4mm로 평년(372.4mm)의 56.3% 수준에 그친 데다 저수율도 3억2100t으로 평년의 81%에 머물러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들 논밭에 급수차를 동원해 긴급 급수하고 염해피해 발생 농지는 관정개발을 통한 용수공급이나 다른 작

물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피해조사를 한 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선 시군과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저수지에 대한 단계별 용수공급대책 수립, 관정·간이양수장·준설 등 가뭄 긴급대책사업 신속 추진, 논물 마름·밭 시들 등 가뭄 징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용수대책 추진 등에 나섰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1억 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등 가뭄대책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영=박기섭기자 parkks@

# '평양예술단' 아리랑 공연

### 내일 장성군 문예회관

장성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 공연으로 북한 전통무용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다.

장성군은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북한무용의 근대와 현대적미를 느낄 수 있는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우리 아리랑' 공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양예술단은 북한 국립 민족예술단 수석단원을 지낸 김신욱 단장과 북한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이다.

이번 공연은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유작과 창작공연과 현재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전통 무용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한편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http://culture.jangseong.go.kr) 전화(061-390-8475, 390-8476)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고흥군 초등학생 80명과 인솔교사는 최근 여수해양경비안전서가 실시한 해양안전 교육을 받았다. <여수해경 제공>

# "물놀이 댄 구명조끼 꼭 입어야죠"

### 고흥 초등학생 해양안전 교육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최근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 선착장에서 관내 4개 초등학교 학생 80명과 인솔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나로도 해경센터 경찰관이 직접 나선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3·4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실제 착용하고, 구명벨, 구명벌을 직접 바다에 던져보면서 잘못된 점을 상세히 교정해주는 등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선박 탑승 전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환, 구명벨 사용법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및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

/고흥=주각중기자 gju@

# 담양군, 8월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

담양군은 "최근 군청회의실에서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산업단지 완공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메타프론티어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증가에 따

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세금회피 목적으로 관행적인 압·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적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앞으로는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금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할도 적합 6800
- 시골주택 담양 봉산면 연동리 대지 952㎡ 주택 55㎡ 1억6천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팬션과 농장적합 5억

###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300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 6백
- 월산동 4세대 생활가능지 대지 313㎡ 집146㎡ 교환가 2억5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3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독립성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화순읍 복숭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0선 5억7천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업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농성초교나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감정가 이하

- 유휴 좋은 모델 대지 422㎡ 건평 984㎡ 김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이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김정 24억선 매도 12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5813㎡ 투지에 양호 2억천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김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1500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지에 좋은 72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1억 2천만원
- 매매-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